

제42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월9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4.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4)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6)
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9)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18. 향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19. 현안보고

상정된 안건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2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2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3
4.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4)	3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3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3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6)	3
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3
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3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9)	3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3
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3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3
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3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3
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3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3
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3
19. 현안보고	3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여기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회방송에서 오늘 전체회의를 생중계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심사 및 농식품부·해수부·농협중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안건 심사 방식은 법률안, 현안보고 등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해당 기관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전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4.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4)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4)
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6)
8.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7)
9.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8)
10.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9)
1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0)
1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22)
1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4)
1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1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17.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9)
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4)
19. 현안보고

(10시04분)

○위원장 **여기구** 의사일정 제1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현안보고의 건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국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성실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수당 감액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불성실 정도와 감액 기준을 농림부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추가하며 민간의 재간접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처분 및 등록의 취소 규정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법 등 7건의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의견 청취가 필요한 계획의 범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해수부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각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반영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은 다음 계획의 수립 주기가 2029년으로 개정 내용의 적용이 지연되는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은 항만 내 하역을 위한 장비 등 대형 노후 시설장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등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를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형벌이 부과되고 대상 시설은 현행법상의 정기검사 등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로부터 최근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최근 농정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확기 쌀값 안정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수급 상황이 쌀값에 반영되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인 약 6만t을 크게 상회하는 27만t을 격리하기로 하였고 현재 약 93% 수준까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지 쌀값은 11월 중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월 5일 자 쌀값은 18만 6852원으로 전 순기보다 0.4% 상승하였습니다.

24년 수확기 평균 쌀값은 80kg 기준으로 18만 4700원으로서 23년보다 8.9% 낮습니다. 다만 농가소득에 중요한 벼 매입가격은 계약재배의 경우 40kg 기준으로 6만 2942원으로서 2.9% 낮은 수준입니다.

쌀값 회복세를 지속 이어 가고 수익 발생 시에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과잉생산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난 12월 12일 발표한 쌀산업구조개혁대책을 중심으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쌀생산체계 전환, 신규 수요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설 피해 복구 추진 현황입니다.

11월 말 대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대설 피해가 컸던 경기도·충남북도·강원도 등의 지자체 11곳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1035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면서 축사 등 시설의 신속한 철거를 위해 재난지원금 10%를 추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서 12월 13일부터 보험금을 지급 중에 있으며 피해 농가에 정책자금 이자 감면·상환 연기, 농신보 보증비율 상향, 시설 신개축 등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의 시금치 습해 피해 농가에는 지자체, 농협과 협의하여 영양제, 종자비무이자 자금 등을 지원하고 분화 재배 등 보험 가입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재해 지원방안도 연구하여 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여름 배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난 12월 30일부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AI 방역 대응입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1월 6일까지 전국에 걸쳐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21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한 초동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 지역에 대해 예찰과 소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 농장과 밀집단지 등을 중심으로 사전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대규모 농장 위주로 소독 전담 차량, 지역전담관, 통제초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 내에 1급 실장들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는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실장으로는 전 기획실장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량실장으로는 전 혁신실장인 김종구 실장이 이동하였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최근 해양수산 현안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현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현안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재해·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저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온은 평년과 유사하나 간헐적인 수온 하강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서해 및 남해 서부에 예비특보를 발령하였고 금일 서남해 일부 해역에 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며 1월 중하순에는 경보 발령도 예상이 됩니다. 해수부는 수온관측망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하는 등 저수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해안가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수면 상승, 해안 침식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연안해역과 육상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재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온, 해수면 등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선의 경우 이미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여객선과 관련하여는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보급하고 카페리선에도 대응 장비 비치

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 관련 해양수산 분야 대응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등으로 해상운임 하방 압력이 예상됩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적선사 간담회, 수출입 공급망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와 MSC의 신규 협력체제로 수출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통해 국적선사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대미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서는 보편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시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운영으로 수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지 무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관련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산물 수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해양수산 분야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두 부처 차관께서는 경제장관회의에 장관 대신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님 나오셔서 최근 농업·농촌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평소 존경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농업·농촌과 농어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면서 평소 저희 농협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추진 내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에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작년 8월부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범국민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0여 건의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 체결, 가공용 쌀 공급·수출 확대, 고객 사은품 등을 통해 총 5만t 이상의 쌀을 소비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전년 이상으로 결정한 농협의 손실을 지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벼 매입자금을 편성하여 벼 매입가격을 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저가 판매 지양 등 쌀 제값 받기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벼 매입농협조합장 회의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산지 지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 쌀값은 현재 약 18만 7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대책과 농협의 지난 11월 11일 쌀값 안정대책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조곡 시세도 매입 초기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선에서 현재 상인 호가 가격은 5만 9000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 몇 개 농협은 6만 2000원에서 6만 3000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는 등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쌀 소비 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쌀 중심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하고 고품질 쌀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적정 가격 판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쌀값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여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배부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법률안, 현안보고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박덕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박덕흠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림부 법안 4건이 부결이 된 이후에 첫 농해수위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종 폐기된 농림법안 4건은 사실 야당 단독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동의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히 여야가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회가 또 농림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정쟁만 계속하지 말고, 입법 성과 없이 계속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대부분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야당 단독 통과에 거부권 행사,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는 좀 끊고 농업·농촌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서 우리 농림법안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정부도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기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손을 막 드시는데요. 가만 있어……

○이병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구 의사진행발언 이병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저는 위원장님, 법치주의를 망각하는 몇몇 분들이 오늘 이 회의장에 갈

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말이지요,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자체도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농해수위가 그간 평온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은 법을 잘 지키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던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문 있지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무슨 일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관저 몰려가 ‘윤 지키기’ 시위대 자처한 국힘 의원들”, 이게 엇그저께 사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합류하고 일부는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원천 무효인 체포 영장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했다’고 했다. 영장 집행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사리에 맞다. 그런데 공수처가 아닌 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영장 집행 반대 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시위대의 일원이 된 것이다”.

자, 한 단락만 더 읽겠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다’.

여기에 부하 수행자를 누가 했다? 우리 위원회에 있는 몇몇 평소에 제가 존경했던 분들이 자행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이지요, 보수 신문을 자처하고 구독력이 높다는, 열독력이 높다는 이 신문에서 손절한 이분들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퇴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에도 말이지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에도. 대한민국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폄하시킨 행동을, 조롱거리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또 국회법에도 위원장님은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병진 위원 간곡하게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의사진행발언을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힘, 국민의힘 위원님 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요.

정희용 간사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마는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안 회의입니다. 현안 회의이고,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 농업 현장 또 우리 해양수산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장관님들께서 지금 여기 국회에서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우리 실제 농민분들,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어떻게 금년도에 그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지,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현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또 위원님들께서 또 각 들으신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개최하시겠다고 해서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에 동의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지금 또 정치 공세를 펴고,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된 것 있으면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에 12월 7일 날은 북·중·러 관계를 경시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탄핵소추안 넣었다가 일주일 뒤 12월 14일 날은 또 여당 의원들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내용까지 넣어 가면서 탄핵소추안을 해서 내란죄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또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죄는 빼고 지금 심판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금주 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지금 정희용 간사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희용 위원 들어 보세요.

○위원장 어기구 자, 발언할 때는……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나오는 것 보십시오. 그렇게 무리하고, 줄 탄핵에 무리하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엄이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금주 위원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는데 들으시면 되지 뭘 또 그렇게 반박을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잠깐만, 잠깐만요.

이야기하실 때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문금주 위원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문금주 위원님답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문금주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지요.

○정희용 위원 시간 좀 멈춰 줘 보세요.

문금주 위원님 왜 그러세요, 말하고 있는데?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들……

○정희용 위원 우리 이병진 위원님 이야기할 때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문금주 위원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반박을 하고 그래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 얘기……

○정희용 위원 나도 옳은 말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어기구 자, 조용하시고요.

얘기 끝난 다음에 위원님 또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용 위원 그래서 각자의 입장이 있고 한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임위 회

의가 진행되는데 또 정치 공세를 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랜만에 우리 현안질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 위원님 두 분 말씀하셨고 야당 위원님 한 분 하셨는데 한 분만 더 기회 주시겠습니까, 한 분만. 그렇게 하고 현안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러니까 한 분만……

○윤준병 위원 정치 공세라고 폄하하니까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해서 내란 행위를 자행한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과 참회를 해야지 그거를 뒷받침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세는 옳지 않다. 특히 수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세 이거는 옳지 않은 건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수용하고 거기에 따른 불복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발생해서 내란이라고 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자세들은 옳게 보이지 않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가 적어서 폐기됐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쌀값 폭락하면서 그걸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 등 민생법들을 우리가 발의했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대로 작년 수확기 쌀값 18만 4700원입니다. 2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과 관련된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입법적으로 치유를 해서 그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야당 위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바라보는 인식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 야당 단독 의결입니까? 여당들이 단독으로 불참한 것이거나 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동참을 안 한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재의 의결된 내용들 보면 사실은 이걸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리도 안 맞고 사실을 호도하고 허위 논리를 가지고 부결하는 데 사용했던 것……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어기구 1분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런 내용들이 거부 사유로 사용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당하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을 야당·여당 위원님들도 함께해서 현재 작금의 어려운 민생 현장, 농민들 아픔들을 덜어 주려고 노력을 함께해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이게 부결된 내용이 야당의 탓인 양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거부권 행사된 내용과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꼭

개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윤준병 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거부된 내용과 관련된 사유가 얼마나 부당함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오늘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문제 또 수확기 쌀값 안정 문제 또 대설 피해 복구 문제 등등 현안에 관한 질의를 좀 오늘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어기구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원택 위원 예, 저도.

○위원장 어기구 예.

○이원택 위원 아까 정희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 약간 해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때 통과된 탄핵소추 원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문에는 내란의 행위에 대한 것이 주문 요청사항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고요. 쪽 원문과 주문 요청사항이 있고 쪽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 내란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보시면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탄핵소추 사유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게 된 건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준비기일 1차 때 그런 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변경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경찰에 있는데, 지금 검찰 쪽에서 김용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에서 다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직권남용죄에 기반해서 내란죄를 수사하는 걸 검찰 쪽도 다 인정했고 공수처 쪽도 다 인정한 사실입니다. 이건 법원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저희 당의 입장이 그래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제 현안질의 들어가시지요.

○주철현 위원 저도 꼭 의견 좀 말씀을……

○위원장 어기구 꼭 하실 말씀 계십니까?

○주철현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철현 위원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꾸 무효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

호처에서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뭐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아 니, 대한민국의 법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을 그걸 무효라고 우기면 도대 체 어떻게 합니까? 더구나 민의의 전당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법원의 영장발부나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이게 민 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모 현장이 아닌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 상임 위에서 어떻게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효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정 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언한 위원님께 확실하게 해명을 요구해 주시고 취 소한다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사과 발언이 있지 않으면 참 이걸 그대로 넘어가기가 쉽 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원장 어기구 예, 여기까지 하시지요.

○주철현 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요.

○위원장 어기구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마 우리 국민 모든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치권에서 힘을 합쳐 서 빨리 하루빨리 이 내란을 종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국민들께서 아마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또 오후에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현안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 정확히 5분 드리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질의를 또 드 리겠는데요. 5분은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장관님,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받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청년농 3만 명 육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 다. 그런데 저희 본 의원실로 들어온 민원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 봐 주십시오.

2024년 청년창업농 심사 시 매우 엄격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서 9월 갑자기 느닷없이 예산이 소진되었다며 정책자금을 막아 버렸습니다. 이때 각 지자체에서는 선정된 사람들에게 일시적 현상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면 25년 1월 2일부터 정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유선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4 년 11월 말경에 뜬금없이 선정자들로 하여금 재심사해야 되니까 다시 서류 제출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농림부는 일종의 요식행위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에 응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1월 2일 농림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845명의 신청자 중에서요 982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결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미리 농지 계약서 등을 작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후계농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해 자금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전남 담양의 한 청년농은 정부가 예산이 편성 되면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우대해 주겠다고 선별했는데 결국 탈락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를 세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출이 안 돼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겼다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3845명의 신청자 중에서 982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면 2863명, 다시 말하면 75%의 신청자들이 탈락을 한 거고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계속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안동시의 경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동시의 경우에 상반기 자금 배정 결과를 보니 청년농업인 신청자 28명 중에서 3명이 선정되었고요. 후계농업인 신청자 13명 중에 딱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책 있으신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의 조기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임미애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11월 15일까지 계약자 그리고 계약금을 이미 이체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9일까지 해서 바로 지금……

○**임미애 위원** 그게요 이렇게 해 가지고 75%가 넘는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그러니까……

○**임미애 위원** 이게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것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하여튼 저희가 여러모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다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이제 너무 무리가 따르니까 말하자면 좀 상환 능력이 있고 영농계획서나 계약이 확실히 증빙된 경우 이렇게 좀 원칙을 바꿨거든요, 작년도에.

○**임미애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애초에 공고문을 낼 때 올해는 5000명 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농림부에서는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데 다만 영농정착자금 지원, 청년농 5000명에 대한 것은 이 후계농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장님, 중앙회장님과 둘러싸서는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권 남용에 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논란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게 국회에서도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새롭게 임명된 주요 임원들을 살펴보면요 과거 각 부문장이나 본부장으로 퇴임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제가 오후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게 물을 깨면 안 되는데…… 질의하셔요.

○**조경태 위원** 서면질의로 하세요, 서면질의로.

○**위원장 어기구** 그냥 말로 말씀을 하세요.

○**임미애 위원** 예.

이게 지금 중앙회장님의 이러한 무분별한 인사 단행이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사가 단행이 되면요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내 사람을 쓰는 식으로 인사를 하시면 농협 내에서 누가 열을 내서 열심히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만두고 차기의 유력한 후보 찾아서 줄 대서 선거운동 미리 하고 공로를 쌓은 다음에 주요 보직으로 임명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중앙회장님의 이런 인사가 농협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과 조합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림부장관께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백묘흑묘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또 일반기업에서 스카우트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박덕흠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양곡관리법이 폐기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 의무매입 조항 외에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이에 대한 입장과 추후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재발의될 경우에 계획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은 한번 드렸었는데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으로 검토할 테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쌀값 문제, 양곡관리법 문제가 다시 이렇게 대두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정부가 쌀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부터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여전히 18만 원대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상당수 농민들이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도 적정 쌀값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2024년도 신곡 평균가가 20만 원대를 한 번도 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년의 추이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여당 위원이지만 농림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서 의무매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쌀값 보장을 위한 개정안 이런 것 아까 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해 주시고요.

또 특히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1000억 원을 투입을 했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박덕흠 위원 그래서 5만t 소비 성과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중앙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쌀값에 대해서는 결국 농협중앙회에서도 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보조를 맞춰서 쌀값이 적정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양곡관리법 외에도 지금 농안법, 재해보험법, 재해대책법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때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이 꼭

이번에는 잘 마련돼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인데 저는 농촌투자 활성화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농해수위 때 장관님께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대책을 조만간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만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 같아, 조만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 말까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다고 말씀드렸는데……

○**박덕흠 위원** 그렇게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지금 상황들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만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렇지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서 그런 건데 어찌 됐든 저는 이번 1월 중에 그래도 조속히 마련돼서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진흥구역이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또 공공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진흥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진흥구역 해제가 될 수 있으면 그만큼 또 우리 쌀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덕흠 위원** 하여간 꼭 양곡관리법이 잘 합의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잘 조정을 해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또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실장님. 새로 오신 실장님 같이 힘을 합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새해 맞아서 덕담을 좀 나눠야 되고 또 첫 상임위라 특히 더 그런데 어제 농업 민생 4법 재의결이 부결이 돼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농민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재의요구서거든요, 재의요구서. 재의요구서인데 두 번째, 어제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재의요구 이유가 이겁니다.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제한은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읽어 보면 어떨까요? 보험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보험료율 할증을 해소한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걸 완화, 해소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농민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보험료를 산정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권역 단위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시비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장관님이 고시해서 보험료를 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역 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고시로. 그런데 이거 고시 지정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요?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법 조문에만 있지, 그러니까 편의상 행정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음성에 폭설 피해 때문에, 전국으로 4500억 피해가 났는데 우리 지역만 500억 이상의 피해가 났거든요. 차관님도 현장에 다녀오셔서 그 참혹한 현장, 답답한 농민 심정 다 듣고 가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음성에.

○**임호선 위원**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대소·삼성면에 집중된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저쪽 원남·소이면 분들까지 같이 시군으로 묶이니까 할증 적용된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갈등, 형평성 시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농협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할 때 영업손익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현장 농민의 목소리를 신문에서 다룬 게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게 김상탁 씨라는 분의 말이신 것 같아요, 청송에 사시는 분. ‘어디 할증뿐입니까? 지난해 피해 있었다고 자기부담비율을 올려야 하는 재해보험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농민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정부랑 지자체에서 보험 가입비—80%지요, 그렇지요?—지원해서 보험사 주지 말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농민을 직접 지원해라’, 그러니까 보험 가입에 지원하지 말고 정부가 났다가 피해 발생 농가에 정책자금으로 직접 주는 게 오히려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냐, 이게 더 실질적인 보상이 된다고 하는 현장 농민분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딱 한 조문 고친 거예요, 9조 2항.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참 너무 답답한데 이게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할증은 없애는 대신에, 개별 농가의 피해 경감 노력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보험 가입률이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54%입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2%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작년도 집계된 게 54%입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 재의요구서에서 개별적·구체적인 확인은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지급할 때 그 노력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또 확인을 덜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보험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여기 헌법을 말씀하셨는데 평등의 원칙,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이 원

칙에 부합하는 겁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할증과 할인이 같이 작동을 해야 하는 게 보험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수지상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할증을 없애면 할인도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호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지금 저희가……

○**임호선 위원** 아니, 다른 보험도 할인, 할증이 다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임호선 위원** 우리가 지금 가입해 있는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할증이 있으면 할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윤준병 위원** 아니, 장관, 제대로 알고나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할증을 없애 버리면 할인도 작동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험상품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아니, 왜 할증이 없어요? 재해만 없애는 거지.

○**임호선 위원** 할증이 왜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해 위험……

○**임호선 위원** 아니, 거기 개별 농가별로 그것을 적용, 의무조항 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할증을 하는 거지요. 개별 농가별로 하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가별로 하는 예가, 사실 지금 54%면 거의 60만 농가지 않습니까? 60만 농가의……

○**임호선 위원** 하여튼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외국 사례도 없습니다, 위원님.

○**임호선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두 분이 농식품부하고 해수부 장관이시기도 하지만 또 헌법상 국무위원이시니까 국무위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 가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든 시민이든 울화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쌀 값도 떨어지는데. 내란 주범이, 부하들은 다 구속됐는데 저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데 왜 못 잡아들이냐라고 마구 야단을 치시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이 무효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농식품부장관님, 이게 합법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주철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왜 못 해요? 국무위원이지 않아요. 국무위원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 전반의 업무를 보좌하고 또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농식품부만 관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그럴 자격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못 하시려면 사표를 내시든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판단이 없으십니까? 말 못 하시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왜 적절치 않아요? 아니, 헌법과 법률의 집행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왜 적절치 않아요? 그 판단이 없으십니까?

해수부장관님,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존중 그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당사자가 되면 다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법치국가고 민주국가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기반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을 못 한단 말입니까? 대통령권한대행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대통령경호처장을 지휘할 사람이 권한대행밖에 없어요.

정부조직법 보게 되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고 또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은 중지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부조직법 16조에 명백히 규정돼 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앓고 있어요.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공직자의 가장 기본이 뭐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고 계세요. 우리나라 가장 높은 공무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두 분들은 국무위원이시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권한대행 행위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장관님,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철현 위원** 아,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려면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실 용의가 있었어요? 한 일은 없으실 거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만나 볼 수 있어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철현 위원** 아니, 국무회의 때 말씀하셔야지요. 국무회의 때 말씀하십시오. 그게 의무입니다, 의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대행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주철현 위원**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공개리에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이 국무회의록에 기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본인이 책임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국무위원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헌법질서, 법질서가 공직자에 의해서 안 지켜지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관님들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법을 대놓고 어기고 그렇게 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장 보직 해임하고 하지 마라고 지시해야 맞지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앓고 있어요.

아니, 이분이 고시 되고 서울법대 나오고 잘 나가는 관료로만 알고 있었더니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이비 정치인이더라고요. 이러면 됩니까?

저는 두 분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가서서 제 말씀 그대로 전달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지키시라고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하시렵니까, 송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하실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전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진보당 전종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임미애 위원님께서 하셨던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부가 청년 후계농 농업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만 믿고 땅도 사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정책자금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대거 탈락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청년농에게 전가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지금 두 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장관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인식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부가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원을 대폭 늘려 놓고 오히려 예산은 축소하는 거꾸로 행정을 펼쳐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손 놓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농 육성 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지요. 성과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 제 얘기보다는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직접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피해 청년 농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소통방을 만들어서 500여 명 정도 들어가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접수된 사건만 보더라도 총 피해액이 거의 100억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 소통방에서는 심지어 죽고 싶다 그리고 자재비 다 올랐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번 정책자금에서, 대출자금에서 탈락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시 떠나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우리 끝까지 해 보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요. 결국은 2024년처럼 이것은 이미 예상됐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22년에서 23년까지 약 5300명 정도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정책자금이 2023년도 11월에 이미 끝나 버렸어요.

그래서 청년농들은 내년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추석 전에 이게 끝날 수 있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거지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이미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게 끝났구나 이러면서 정부 신뢰는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오히려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단 토지나 시설 계약 등 이런 계약금을 지불했던 사람들에게 긴급 구제 대책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3차……

1분만 주십시오. 아니,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얘기하세요.

○전종덕 위원 아니, 30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어기구 2차 질의, 2차 질의.

○전종덕 위원 2차 질의 30초 빼시고요.

○위원장 어기구 아니, 그만하세요.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주십시오.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니, 저기……

○전종덕 위원 그래서 긴급 구제 대책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추가 편성하기 전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을 세우기 전에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화 자리를 마련하실 것인지 그리고 긴급 구제 대책, 응급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청년농 육성 사업은 올해도 5000명 선발을 할 예정으로 있고 작년에 5000명을 했는데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청년농 육성 사업의 전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나 스마트팜이나 주거나 그다음에 3년 동안 영농 정착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후계농 육성자금이 부족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후계농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신청받아서 올해 상반기 자금 배정 3250억 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수요를 다 못 쫓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알고 있고.

저희 과장이 어제도 몇 분하고는 면담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년농들 제가 면담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대화 자리를 꼭 만들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만들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장관님께서 직접 목소리 들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제가 직접 들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리고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 주세요. 대책 세우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농 대책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여기 아마 위원님들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시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각별히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율의 조경태입니다.

두 분 장관님 또 농협 회장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지금 참 부끄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선진 농업, 선진 수산업을 지향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딱 네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이집트. 이 나라들은요 1인당 GDP가 1만 불도 안 되는, 미얀마 같은 경우는 1100불밖에 안 되는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줄지에 60년, 70년대로 만들어 버린 그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화가 안 납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구성하려고 했어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해수부장관님께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10월 25일 날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본 위원이 다대부두를 하루빨리 개발해서 지역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질의 한 것 기억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2020년도에 발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연안도서 지역의 SOC 확대를 통한 지역 지원 확대 방침에 다대부두도 들어가 있었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다음에 2022년부터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마리나항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이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에 대한 기능 재편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죽 듣고 있기로는 장관님께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수부에서는 다대부두 개발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25년 예산편성 노력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부산항만공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태 위원 장관님, 그러면 다대부두의 개발 필요성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다음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대부두 반영시키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민들께서 감천항에 있는 부두, 거기도 같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가로막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바다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렇지요? 즐길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래서 감천항하고 다대부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역비 10억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만약에 추가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다대부두 역시도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시설들이 친수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9일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항공기 참사로 179명이라는, 안타깝게 희생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이 났습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국회 항공참사대책특위 위원으로서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두 분 장관님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중에 농업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희생자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파악하였습니다.

○문금주 위원 해수부 쪽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해수부도 파악 좀 해 봐 주셨으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합 단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예, 농·축협 조합원만 열여섯 분이 되시고 가족까지 하면 마흔다섯 분이 되세요. 그래서 농림부 차원 또 해수부 차원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후속지원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제가 얼른 생각해 봤을 때는 피해농가 영농활동 공백에 따른 전문 대체인력 지원이랄지 또 농업정책자금 대출 지원, 정책자금 만기 연장, 이자 감면, 할부원금 납입 유예, 기타 심리치료·상담 지원 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장관님들 좀 검토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잖아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많은 업종에서 엄청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외신인도 제고랄지 또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 제거에 우리 두 분 장관님들은 국무위원으로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27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관련해서 여러분들 간담회 갖고 탄핵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시던데 탄핵 반대를 외치실 게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께 불확실성 제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체포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추경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농림부 예산 때 반영하려다가 반영 못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무기질비료 예산이랄지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던 청년창업농 육성자금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어떤 것을 전달…… 아까 주철현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전달을 하시겠다고 그러던데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거기에…… 내가 보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는데 12월 31일 날 당시에 국무회의 통해서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겠다고 발언을 하니깐 국무회의 끝나고 간담회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타당하다, 옳다,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 더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불확실성이 빨리빨리 제거될 것 아닙니까.

두 분 장관님,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추경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답변을 드립니까?

○**문금주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말 지금 서민들 힘들어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민들께서 지금 참고 있는 게 괜히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내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언제 구속이 되나, 언제 탄핵이 되나……

적극적인 역할을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존중이 1번,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고 국민을 위한 권한대행 업무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현재 있는 예산 규모 내에서 1분기, 2분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현재 있는 어려움들 많이 헤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여야 의원님들, 특히 국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 적절히 준비했다가 요청을 하고 그게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재차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어기구** 농림부장관님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인지하고 있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든 빨리 민생 안정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배정받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분야에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정부 내에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두 분 장관님께서서는 내란 잔당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농림부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김선교 위원** 2025년부터 농지법 시행령, 체류형 쉼터 설치 안이 발표가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지역 관련한 규제완화 대책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언제 발표가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작년도 연말 안에 농지에 대한 대책들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상황들이 여의치가 못해서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정말 말씀을 드리고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농지법에 관련해서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을 냈어요. 그래서 규제완화 대책을 조속히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실질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이제 농촌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경지정리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농사짓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늦게 발표되더라도 현장을 살펴봐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개정안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장관님이 쌀 소비를 위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장을 좀 만나 뵙고 또 대한노인회장님을 좀 뵙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보면 경로당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쌀 소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MOU 체결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쌀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한번 만나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제가 시도지사협의회랑은 한번 그런 일을 추진해 보려고 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원래 추진하려고 작년 말에 시도를 했는데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경로당 등에 쌀 지원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도 연임이 됐고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장님이 이충근 회장님이신가, 새로 되신 분이? 좀 빨리 만나서…… 그게 은근히 쌀 소비를 많이 시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김선교 위원** 농협중앙회장님, 지역농협, 농협 자회사들이 여러 기관과 MOU를 맺고

실제 쌀 소비는 MOU를 맺은 해당 기관에 넘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이 지역본부장이나 시군지부장 등등 해서 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MOU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후관리도 저희들이 아침밥 먹기 운동에 따른 예산도 투입해서 아마 MOU 기업에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협 회장님이 먼저 우리 국정감사 때 예산 한 1000억 원 들여서 진행 시킨다고 그랬는데 기관별로 실제 쌀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서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농림부장관님, 설 명절을 앞두고 AI 감염 등으로 산란계에 살처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란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리 대비해서 세부적인 수급방안이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지금 AI가 현재까지 21건 발생했구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농가들을 보면 농가 단위에서 아직도 방역수칙을 조금 소홀히 하는 곳들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소독이나 예찰 등은 계속하면서 농가들의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특별점검반도 운영을 하고 다각도로 지자체랑 협력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 위원입니다.

좀 뜬금없는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박정훈 대령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문대림 위원** 오늘 조금 전 군사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특검도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22대 국회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 중에서도 연루된 분들이 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내란수괴 윤석열 씨가 제2의 내란을, 전열을 정비한다, 제2의 내란을 도모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히틀러도 지지 세력이 있었고 전두환도 지지 세력이 있었지요. 종교적 이단도 광신도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 그들은 결국 법적 심판을 받았고 역사에서 소멸됐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그 사람에게도 지지자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양반을. 우리 국민이, 정상적 국민이, 합리적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비합리적인 정부를 만나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 씨를 한국의 GDP 킬러라고 그렇게 보도했구요. 그리고 상당수의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체포 실패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보

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현황보다도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두 분 국무위원도 역할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두 분이 윤석열 사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공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부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헌법재판관 임명 2명만 했을 때 아까 문금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상당한 반대를 했었고. 그때 장관의 입장은 뭐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대행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대림 위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문대림 위원** 마은혁 후보자를 조속하게 임명하는 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료하는 게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대행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

○**문대림 위원** 장관께서는 국가를 위한, 현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 고민이 없다, 저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앞서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다라는 것에……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거 동의하고요.

또 다른, 지금 말씀하셨던……

○**문대림 위원** 두 분의 장관은 부처의 업무도 있지만 주요 국정현안을 심의하고 조언하는 이런 역할이 헌법적 의무로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거든요.

머지않아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씨가 이제 쇠락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농림부장관에게 우리 농정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의 자존과 명예도 생각을 좀 해 주시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해 줬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결코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면서 논쟁을 벌일 때 장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것은 공식적인 국무회의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무회의의 사실은 심의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대림 위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물론 저의 개인적 평가라고 해 두지요—장관은 사복의 길을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공복의 길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문대림 위원 앓기는 뭐가 앓아요?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새해가 되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러는데 을사년에는 새 부대는 있는 건지 새 술은 있는 건지 아무리 봐도 으쌔으쌔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을사년이 을씨년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가 출범 당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농업 분야가 3개, 해양수산 분야가 3개 있었습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국정과제 수행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객선공영제의 경우 추진에서 운영 방식 개편으로 변경하는 등 이런 안일한 국정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묻겠습니다.

여객선공영제 도입을 위한 해수부 예산추계 또 앞으로 향후 실시계획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두 분 장관께서는 국정과제를 월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의 성과와 추진율 등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일전 회의 석상에서 제가 계엄 당시에 농업박물관에 계엄군들이 불법·무단으로 주차장을 사용했다 그랬는데 농림부는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고발 조치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에 의하면 90여 명의 민간인들을 감금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답변을 보내왔는데 국립농업박물관법에 의하더라도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태 이후에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한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아직까지는……

○서삼석 위원 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들 90여 명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하게 구금을 당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이 사후 조치를 한 것도 없고 또 사과를 당연히 안 했지요. 여

기에 대해서 이 민간인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하여튼 시설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뒤늦게 인지해서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야간에 저희들이……

○**서삼석 위원** 민간인들한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요. 아무 죄 없이 구금을 당한 민간인들 90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이 시설 관리하는 데 책임을, 장관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구금을 당했다는 게 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삼석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이 자료 기사 내용이니까 장관님께 갖다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고발·고소를 할 것인지 등, 관련자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인들 구금 사태 관련해서도 꼭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서삼석 위원** 선박법 제6조, 국내항로를 이용하려는 외국선박은 해수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대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 얘기는, 순이(ShunYi) 1600호의 횡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해경과 합동 조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취한 것인지 현재의 진행 상황이 뭔지 그리고 중고 선박으로 거짓신고해서 설치하게 된 그런 배경 또 외국업체의 국내 해상풍력 설치 사업 독점이 우려되는 데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원실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현재 수사 중이고 전반적인 내용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후계농업 육성자금 관련된 문제, 청년농들의 정부 대책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지적한 내용들이 본 위원의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기사화됐는데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이런 정책을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농업 정책의 졸속, 이게 전형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11월 말부터 공고 후 12월 9일까지 접수 받아 가지고 콩 볶아 먹듯이 할 수가 있는가. 현행법에도 3개월 이상 유예라는 그런 기간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행태가 벌어졌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농민들이 아닌 청년농민들 후계농민들한테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농업의 붕괴의 전조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한없이 안타깝다 하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당장,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단축해서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삼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문제점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부결됐는데요.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에 대통령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농업 법안은 5건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5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장관님 앉아 계셔서 부결된 상황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부결되니까 만족스러우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

○**송옥주 위원** 그거 농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는 부작용을 좀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송옥주 위원**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21대 때부터 계속 논의됐는데 계속 말로만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와서 설득하거나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왜 자꾸 재의 요구만 하시고 부결하는 데 제안설명하시고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림부장관하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농민들에게 천 번이나 만 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과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살려 달라는 아우성과 한숨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구당 농업경영비가 2021년에 2423만 원에서 현재는 2678만 원으로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농가 소득 중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농가 부채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께서 농사를 안 지으시면 저희 식량안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농업 민생 4법 부결은 내란수괴인 윤석열 그리고 내란공범인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

고 내란동조인 송미령 장관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사과하실 의향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내란동조라는 말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동조 빼고. 동조 빼면 사과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동조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송옥주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동조라고 보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게 사과는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 4법과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위원님.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결부를 시키시면 저는 그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송옥주 위원 제가 보니까 윤석열 씨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아마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 제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편향되고 극우적으로 보수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 않습니다.

○송옥주 위원 제대로 민생을 책임지시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업의 어려움을……

○송옥주 위원 사과 안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이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대안에 대해서 언제 얘기를 하셨어요?

왜 얘기를 하세요, 대안을 하시면 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입안정보험을 포함한 농가 소득……

○송옥주 위원 저희가 그동안 그렇게 법안소위라든지 법안심사를 하는데 정부부처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님께서 법안을 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안들을 마련해 주세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송옥주 위원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이게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옥주 위원 이런 법안과 관련해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재의 요구를 하고 부결을 다섯 번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5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법안에, 법안에……

○송옥주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초반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해수위 위원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농민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해서 얼마나 이게 당위성이 있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동조하는 부분들은 저는 농민들을 무시하고 농민들에게 피담 흘린 부분들을 인정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관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정부하고 입장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옥주 위원** 전혀 다르지 않은데, 그렇다면 제대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송옥주 위원** 이게 21대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그런 거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21대 말 지난 다음에 저희가 민관학협의체 만들어서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송옥주 위원** 그 민관협의체도 제대로 반영되거나 의견수렴이 안 되신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민관학협의체를 만들어서 21차례의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장관님, 계속 할 때마다 발언하시는 게 말장난하시는 것 같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송옥주 위원** 그러면 제대로 보여 주세요. 법안을 제시하든지 정책을 제시하든지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제대로. 저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 저희 상임위 할 때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실 거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자고 저희가 여러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저는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윤준병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 방금 전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윤석열은 자격이 없고 빨리 파면되었으면 좋겠고 또 조속히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또 국무위원들에게 당부까지 하셨는데 저는 국힘 내에서도 변화의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란동조범이라는 오인이 되지 않도록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보면 쌀값 안정 이렇게 표를 달아서, 농식품부도 그렇고 농협중앙회도 그렇고.

쌀값을 안정시켜야 될 시기입니까, 회복시켜야 될 시기입니까?

인식 자체들이 그 모양이니까 지금 제대로 쌀값을 회복을 못 시키는 것 아니에요? 업

무보고에 쌀값 안정이…… 지금 쌀값이 폭등했습니까, 안정시키게? 폭락한 거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쌀값 안정 이렇게, 그만큼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뭐, 뭐를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인식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전년도 쌀값, 벼값 수준 또는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를 했어요. 지역농협 RPC 702개소 중에 현재 수매가를 결정한 게 557개소, 그중에 권고한 내용대로 된 게 220개소로 1월 6일 기준입니다. 권고를 안 따른 데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RPC가 703개는 아닌 것 같고요.

○윤준병 위원 702개소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그것은 전체 쌀을 취급하는 조그만……

○윤준병 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통계는 그렇다손 치고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전체 우리가 RPC 지원자에 보면 557개 맞습니다. 맞는데……

○윤준병 위원 아니, 통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233개인데 저도 12월 30일, 31일 긴급하게 하게 경남·경북에 가서……

○윤준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이냐고 묻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직도 강구를 못 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니아니, 저희들은 2025년도 자금 배정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기타 경제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페널티도 여러 가지……

○윤준병 위원 그 조치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페널티를……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 쌀값 제대로, 권고한 내용이 이행 안 되는 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제대로 담보해서 농민들 편에서 지역농협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제도적인 장치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가한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농협중앙회 인사와 관련해서 흑묘백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력 있는 사람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윤준병 위원 좋은데 그 내용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인사한 기관장들, 인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인사 평가한 내용, 뭐가 우위에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 부분은 국정감사 때 제대로 들여다볼 계획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제 농업 민생 4법 관련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 장관 얘기로는 전향적으로 하려고 했고 부작용만 없애 달라고 그랬고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그동안의 대안은 가루쌀, 수입안정보험입니다.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건 늘 선의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데 저는 그런 오만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마련된 대안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제출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준비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언제까지 제출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부안의 논의를 좀 거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지금……

○윤준병 위원 정부안도 없으면서, 논의도 안 거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정부안은 있습니다. 정부안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이제 시작하면서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닙니다.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있으면 쥬 보세요.

○위원장 어기구 정부안이 뭐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위원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한강의 본류가 어디지요, 한강의 본류? 검룡소지요, 검룡소? 한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한강의 본류가 어디냐고요. 검룡소부터 시작해서 쪽 내려오면서 남한강, 북한강으로 모여 가지고 여기 지나가서 서해 바다로 나가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병진 위원 한강의 물줄기를 역류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렇습니다.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를 진정 당부드리고 싶고요.

친수공간이 무슨 뜻이에요, 친수공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쉽게 얘기하면 지역 주민들이 물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이병진 위원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혐오 공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병진 위원 뭐 반수 공간이 될 수 있겠고 원수 공간이 됐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한번 들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기 한 명도 안 가요. 68억 들었어요. 그런데 매년 1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수산..... 저거는 평택 다 인사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거기 굉장히 다들 오래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우리 의원실에 불려도 자료도 잘 안 내요. 감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제가 현장 방문하고요.

○이병진 위원 PPT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 상단에 저기 원정리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못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겠다고 하고 나서 다음날 휴가를 가 버립니다. 이런 복지부동하고 이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공무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감사하세요. 예?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제가 이것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것 정말 조치 계획도 평택청에서 내놓은 것 세 번째 한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황폐화할 대로 황폐화됐는데 돈만 쓰고 있어요. 보수비만 쓰고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써서 문드러집니까? 국비가 목적 없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 감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펜타닐이라고 알지요, 펜타닐? 해양 돌고래에서 펜타닐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약물 검사를 해 보면 마약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서해 바다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수도권 모든 것들은 평택항을 통해서, 평택항, 안성천이라고도 부르는데 서해 바다로 내려가거든요.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에요? 장관님, 우리나라 마약청정국이나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해 가지고 바다 생물에 농축되고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켜요. 이것 지금부터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미군들도 있고 평택항이나 안성천 그리고

서해 바다로 나가거든요. 그 데이터까지 시간이 없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관한 준비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병진 위원 그다음에 중앙회장님,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중앙회 차원에서 오프라인 하나로마트 지원 올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설 연휴에 정부하고 함께 각종 할인이나 농산물 할인 행사를 해서 소비 촉진을 도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진 위원 지금 굉장히 경기가 침체돼 있고 국민과 농민이 하나로마트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특히 농촌 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거기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설 전후에 하나로마트를 더욱더 기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트가 나름대로 생산성 기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 수준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활기찬 설을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장관님들 또 농협중앙회장님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새해가 되기는 했지만 참 어떤 희망찬 말씀만 좀 드리고 덕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꾀꾀하게 자기 맡은 일들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중앙회장님, 이게 조금은 준비가 안 된 답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농지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 당국에는 제가 그동안 21년도 개정된 농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단위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가장 농민들하고 현장에서 많이 소통을 하시는 위치에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느끼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지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또 고령화된 농어민들이 농지 거래가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소멸돼 가는 농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도 장관님한테 여러 차례 농지법 폐지에 따른 여러 가지 건의도 좀 드렸고 농협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만희 위원** 정확하게 사실은 알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해수위의 여러 위원님들 또 농해수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놓으신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총 거의 한 15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한 지가 벌써 거의 반년 이상 지나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이 개정 논의가…… 우리 위원장님도 제가 개정안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 양당 간사님한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 개정안들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법안소위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장관님하고 차관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에서도 농촌진흥지역 구역에서의 어떤 농지 거래 문제 또 의무보유기간의 문제라든지 또 농지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동안 해 오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정부 쪽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사실은 거의, 정부안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말까지 좀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하여튼 1월 중에는 말씀 다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농해수위에 거의 7년 가까운 저기 되는데요, 6년, 7년 정도가 되는데 어떤 법안보다도 현장 농민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으신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값 잘 받고 자식처럼 가꿔 온 농토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좀 은퇴하고 싶으신 생각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또 농협에서도 좋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들 저기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개인의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누구보다도 이게 중요한 사안인 걸 감안했을 때는 정해진 모든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들 다 힘내시고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 위원**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무안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항공기 사고의 희생자분들,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 피해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유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신 농해수 위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청년 농업인 융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신데, 이게 선착순 지급 방식에서 평가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후계농 자금,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리고 5000명 규모로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사전에 안내나 고지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자금이 집행 완료되고 나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정희용 위원**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예측과 달리 제도가 변경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좀 사정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그 청년 농업인들께서 바라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렇게 절차를 한번 가져 보시기를 적극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 과장이 만나기는 했는데 아까 전종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직접 만나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값이 11월 15일부터는 상승세로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님께서도 이견이 없으실 거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그게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데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하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반등폭이 너무 적어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우시는 한데, 원래 이 계절에는 사실 계속 추세적으로는 쌀값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그와 달리 계속 조금씩이지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오름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현장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경기까지 보면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농가 환원조치를 좀 하

자, 이게 원래 협동조합의 정신이고……

○정희용 위원 그건 현안보고에서 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농가들한테 그렇게 환원이 되는 조치가 이루어진 그 농협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위원 계획된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꼭 쌀값이 올라가서 걱정을 더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지속 반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해수부장관님, 며칠 전에 북한에서 또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정희용 위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 어선들은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현재까지 어업인이나 어선 피해는 없고요.

○정희용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북위 38도 이남으로 이동하라는 조치를 우선 취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미사일 쏘고 얼마 만에 그걸 체크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보고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정희용 위원 그런데 그동안 미사일은 다 지나가 버리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몇 분만에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게 56번입니다. 제가 이 체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늘 강조하고 있거든요. 해군, 해경, 우리 해수부 해서 혹시라도 모를 북한 도발에 따른 우리 어선·어민들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장관님 그것 특별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게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올해 서해 GPS 피해 몇 척 있었는지 아십니까? 16척 있었답니다, 올해 벌써. 작년에는 1782척이 피해를 봤고.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 이것은 진짜 사명감 갖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정희용 위원 농협중앙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쌀값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정희용 위원 작년에 농협은행에 금융사고가 6건 있었고 총 45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4월 정기검사에서 지적을 했고 10월 수시검사에서도 이 개선사항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런 금융사고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예, 철저히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금융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1차 현안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원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사실 권한대행하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 소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인데, 사실 상설특검 추천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추천이라든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거의 손절하고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다, 헌법과 법에 명시돼 있는 그 법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민생법안들 또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권한대행과 국무회의에 제가 유감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 제가 내란특검은 두 분 장관께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입장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업 민생 4법과 관련해서 아까 뭔가 타협안·조절안이 필요하다, 전향적인 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정부가 좀 내세요, 한번. 쥬 보세요. 21대 때 저희가 양곡법만 하더라도 3%, 5% 해서 의무 매입하겠다는 조항을 저희는 22대 와서 이걸 정부에 위임을 해 났습니다. 3%, 5%로 설계할 거냐 4%, 7%로 설계할 거냐 정부한테 위임을 해 났습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낸 겁니다, 21대에 비해서. 그런데 정부는 정부 위임안도, 이것도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는 타협안을 냈습니다. 안 받는 거잖아요, 정부가.

양곡가격의 안정제가 도입되면 쌀이 늘어날 거다, 저희 법안에 눈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휴경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해 났잖아요. 그런 법안들을 보고 평가를 종합적으로, 농민들을 페널티를 주고 강제해서 감축하려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업종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안 좋은 자기 주장들만 내걸면서 반대한 겁니다. 조정안이 없는 거지요.

농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시에 일부 차액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이것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정부한테 권한을 위임해 났어요. 과거 같으면 저희가 3%, 5% 했듯이 했을 겁니다. 우리는 타협안을 냈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타협안을 낸 적이 없습니다, 못 받겠다는 거였지. 국민의힘도 타협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협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법안을 결국 거부를 시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도 적극적으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식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을…… 우리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면서 정부 것을 고집하면 전향적 안이 아니지요. 전향적 안을 가져오십시오. 안 내놓고 ‘가져왔다, 가져왔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정부의 쌀산업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가루쌀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고 20만 원 이상 가격을 보장하는 것도 실패한 거고 또 8

만ha를 논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것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의무 감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12%를 의무 감축을 하는데,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감축하라는데 일률적으로 페널티를 주면서 감축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농민들 저항에 시달릴 겁니다. 이게 1월 달에 농민들한테 고지가 되고 나면 아마 농민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될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중앙회장님, 아까 조합에서 쌀값의 이득이 발생하면 조합원들한테 환원해야 된다, 그것 환원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중앙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강호동 아직 쌀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쌀을 판매해서 수익이 나면 지역농협에서는 각종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쌀농가에 비료라든지 또 그에 걸맞은 영농자재를 좀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원택 위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쌀 정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18만 4700원에 나와 있어요. 정부의 역할은 실패했고 농협중앙회가 작년 수매가 이상으로 하겠다는데 제가 보니까 평균 한 2000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중앙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보전 방안은 근시안적 보전 방안입니다. 정부가 중앙회하고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벼 수매자금을 조금 더 주고 말고 어디는 안 주고 더 주고 이걸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다, 실질적 보전 대책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의사진행발언.

○전종덕 위원 제가 방금 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미처 못 했는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육성사업 관련해서 사실 근본 문제는 인원은 늘리고 예산은 삭감해서 이 대혼란이 지금 있는 건데요. 그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제 대책에 있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방안이 될 텐데요. 작년의 경우 8월에 끝나 버리니까 긴급투자를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구제 대책을 시급하게 세울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구제 대책 관련한 농식품부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 시군별로 정책자금 인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약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거든요.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 열 곳 정도가 아예 1명도 배정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배정 현황과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선출 방식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선착순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공지나 소통이 있으셨는지 이런 홍보를 좀 하셨는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충실히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과정 없이 갑자기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와 관련한 홍보나 소통 이런 절차나 과정이 있으셨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고요.

또 장관님께서 우리 청년농들 직접 만나서 간담회 하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포함해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자료 제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이상으로 1차 현안질의가 끝났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농촌 현황 또 해양수산 현황 또 농정에 관한 많은 정책 제안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수산 정책 하는 데 위원님들 정책 제안을 잘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국회에서 소위 농업 민생 4법이라는 법이 부결됐는데 송옥주 위원님이 ‘장관님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장관님, 지금 농업·농촌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시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지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각 면 단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직은 올해 들어서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 교육을 받아야 소농직불금을 아마 받게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이 다 지팡이 짚고 그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데 가면 피눈물이 납니다. 한번 농업 현실을……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면 단위에 가면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요. 면 단위에 하나 정도 있는 초등학교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고요, 팔십 먹은 어르신이 이장을 하고 있고 육십 먹은 사람들이 청년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가 농업소득은 1000만 원대 언저리에서 변함이 없고 또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든 가격은 다 오르는데 왜 쌀 가격만 그렇게 틀어쥐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올해 농협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왜 쌀값이 변동이 없을까요?

그래서 농민값이라는 이 쌀값을 좀 어느 정도, 생산비 정도는 보전해 주자 해서 민주당 주도로 만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재해대책법 자체가 재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법 통과를 간절히 원하는 농민들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것은 전혀 해야리지 않고 장관으로서 말

씀하시는데 저는 이 법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리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 통과돼서 실행이 됐을 때 과연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농업 민생 4법이라는 이 법이 정말 농업을 망하게 하는 법일까? 저는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될지 궁금해요. 그러면 장관님은 정말 농망 장관이라고 낙인 찍힐 거예요.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좀 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안이 뭐가 있는지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쥐 가지고 저희도 논의도 좀 하고 그러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현재……

○위원장 어기구 맨날 대책 있다고 그러는데 안 갖고 오지를 않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대목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그걸 좀 가져와 보세요.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국민의힘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한번 쥐 보세요, 정부가 어떤 안이 있는지. 주시지 않고 말만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농안법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시니까 정부에서 수입안정보험법이라든지 또 보니까 벼 재배면적 조정제 해 가지고 8만ha 지금 강압적으로 막 감축해 가지고 오더를 내리는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강압적이지요. 지금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면적 이렇게 줄이고…… 당진도 보니까 2317ha 줄여라, 이것 안 줄이면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시키고 SOC 사업에서 패널티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강압적이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농민들하고, 충분히 이해 당사자하고 논의를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친환경농업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해라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그런 것 이해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지, 이게 바로 지금 한 6개월 남았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이게 현장에서 정책 집행력이 정말 되고 그러려면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해야 돼요. 아니, 한 4만ha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갖다가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장님, 쌀값 오르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야지요, 좋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지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해야 되는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정말 돌다리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충분히 농민들 입장도 듣고 이렇게 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여러 대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해라 그다음에 말하자면 방식도 이런 방식들이 있다 여러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5분 넘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하겠는데요. 장관님, 자꾸 변명에 변명, 이유 토 달지 말고 저희들 의견을 잘 들어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뭐 농업·

농촌을 망하라고 그러는 위원들이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당연히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장관님, 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마치, 지금의 부작용이 많은데……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이제 1차 현안질의가 마무리됐고요. 2차 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1시에는 마무리돼야 2시에 본회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1시까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자발적으로 하시고 싶은, 꼭 해야 될 말씀……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위원님들 3분 현안질의……

○**전종덕 위원** 오늘 이것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예?

○**전종덕 위원** 오늘 오전에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어기구** 예, 오전에 마무리합니다.

○**임미애 위원** 잠깐만, 그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임미애 위원님, 3분 하세요.

○**임미애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 저희가 농림부와 해수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올 25년도 농정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로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데……

○**위원장 어기구** 다음 주에 또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일정을 잡아서……

○**임미애 위원** 다음 주에 그러면 언제 의사일정을 잡으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본회의 끝난 다음에라도 속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속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때요?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은 3분 질의 임미애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마치게 된다면, 끝내게 된다면 다음 주 빠른 시간 내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 어기구** 다음 주 14일 날 지금 잡혀 있고요.

○**임미애 위원** 14일이요?

○**위원장 어기구** 예,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잘 앞으로……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정희용 위원** 자료 요청하시고 의원실로 오라고 그래서 보고받고 하세요.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3분……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이것 공개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많아서 자료 요청 내지는 의원실에서 답변을 듣는 수준으로는 이것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임미애 위원** 그래서 회의를 계속 열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3분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 지역의 어민들께서 공개적으로 해수부장관님의 답변을 한번 꼭 들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국감 당시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어민들이 입을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니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통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라는 질의를 드렸고 그 당시 장관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환경과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정말 답답한 건 12월 20일 날 이것 시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가 입장에서 이 시기가 거기가 홍계가 집중적으로 잡히는 구역이고 지금이 성어기입니다. 금어기인 7월이나 8월 사이에, 한 45일간의 금어기에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자부하고 협의를 했다면 지금 어가의 문제가, 불만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협의를 하지 않고 하필 성어기인 12월 20일부터 이게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역의 어가들이 입을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부는 산자부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조건에 보면, 해수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석유공사에 내어 준 이 조건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어가가 입는 피해가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한 7000만 원 정도이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시추 기간 동안에 발생할 피해는 어가가 추산하기로는 수십억에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장관님은 산자부 그리고 석유공사와 어떤 협의 그리고 어떤 요구들을 하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아마 시추선 계약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던 부분, 시기적인 부분에 어떤 오버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전예방 대책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어업인 피해 여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시기 조정을 안 하셨습니까? 시추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상관없어. 금어기에, 그러니까 홍계를 채취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 성어기에 시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게 저는 해수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전에 다양한 예시가 있었는데 아주 좁은 면적의 시추 작업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런 보상 없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케이스는 사실은 홍계조합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해수부에서 개입을 해서 석유공사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어업인들하고 협의를 봤던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어업인들의 요구에 맞게 짜여진 거고 이후의 대책도 어업인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해수부의 책임은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지 않습니다. 선금을 달라는 게 어업인 단체들의 요구였는데……

○임미애 위원 지금 그것 석유공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용역을 줘서 확인해서 피해를 확인한 다음에 보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용역 줘서 그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 상황을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거기다가 좁은 면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생각을 해 보세요. 대륙붕에다 그것을 드릴로 뚫게 되면 거기서 광범위하게 일종의 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산란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해양생태계 자체가 변화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해수부가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그냥 해고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지난번 국감 때는 분명하게 협의하고 대책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여진 것은 일방적으로 어가가 그 피해를 전부 다 감수해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고 대안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호선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3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 장관님, 지금 우리 농민들 현재 이 시점에서 최고 관심사가 뭘지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료입니다, 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비료.

○임호선 위원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아마 이것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2022년도에 무기질비료 1800억 예산 편성됐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23년도에 1000억으로 줄고 작년도에 288억에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폐지됐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증액하려다가 우리가 못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못 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증액하려다가 못한 게 아니라 정부안에 어차피 안 담긴 것은 기재부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맞아요. 그게 원래 한시 사업으로 도입된 거라서, 3년 한시로……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3일 내란 사태로 인해서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부터 농림식품부에서 원자재 수급 대책을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할당관세 요소인 경우에 2%에서 0% 또 인산암모늄 같은 경우 할당관세를 이제 물리지 않는다 이런 정도인데, 그리고 생산업체에 융자하는 것 이것 갖고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협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일단은 하여튼 저희는 지금은 원료 구입자금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 아니, 농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하여튼 인상 요인을 좀 억제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농협이나 비료 공급하는 업체의 단위에서……

○임호선 위원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요 원료를 다 수입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게 요소비료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1만 5000원이 아니라 이제 1만 8000원, 2만원 이런 식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영향을 받으실 수 있지요.

○임호선 위원 금년 영농계획 세우는 데 엄청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거고 지금 두세 분 만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염려하시지요.

○임호선 위원 한숨들을 쉬고 계시거든요. 저희 국회 차원에서는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반드시 우리 농해수위 차원에서 담겠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다 한 가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기재부에 안을 내 주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그리고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 내용을 보니까 10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안을 잡으셔서 가지고 저희 국회는 물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시름을, 적어도 환율 폭등에 따른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영농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임호선 위원 이 사업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농가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지금 8만ha를 감축하겠다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전종덕 위원 목표를 그렇게 세웠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되면 24년도에 쌀 재배면적이 69만ha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8만ha를 감축하게 되면 24년 재배면적의 11%를 감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77만ha에서 2024년 69만ha 감소하는 데까지 딱 8만ha거든요. 이것 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9년 걸린 것을 1년 만에 지금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가들 현황을 한번 봐 보세요. 65세 이상 고령농이 66.4%예요. 그리고 0.5ha 이하로 소규모 농가가 52.2%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1%를 단시간에 이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농업 현실은 무시하고 무조건 13%로 정률적으로 감축해라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는 시군에서 농가별로 알아서 해라,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축하겠다고 하는데요. 식량자급률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식량자급률의 경우도 보십시오. 27년까지 목표로 세웠던 식량자급률은 2년을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쌀 자급률도 2년을 유예하겠다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도 연동해서 2년을 유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13년 동안 식량자급률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100%를 넘었던 적은 단 다섯 번에 불과합니다. 13년 동안 여덟 번은 100%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런데도 무조건 재배면적만 감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소에서 연구자료 보면 실제로 식량자급률을 달성하려면 149만ha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5만 1000ha가 지금 부족하다 한 건데 여기에다 또 8만ha를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식량 안보는 안중에 있는 겁니까? 무조건 재배면적 감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식량 자급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식량 안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일본과 같은 사례를 우리가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재배면적을 강압적으로, 그것도 농민들과 시군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당장 저는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식량자급률 목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님. 식량작물이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밀도 있고 콩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종덕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걸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데 쌀은 자급률이 10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쌀은 남으니까 쌀 면적을 좀 줄여야 쌀 가격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쌀 면적은 그대로 유지……

○전종덕 위원 쌀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료가. 쌀도 부족하다고, 면적이.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전종덕 위원 식량 안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어기구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 안보라면서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그래서 쌀 재배면적은 조금 줄여서 그것을 다른 작물, 타 작물을 심거나 혹은 쌀을 심더라도 친환경농업을 하자, 단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양만 고려한 쌀이 아니라 질도 고려하고 식량 안보를 고려하니까 타 작물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이 목표가 올해 달성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그렇게 목표를 세워 놓고 우리가 지금 상호 조정을 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만 쌀 가격도 보전하고 오히려 식량 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벼 재배면적 조정에 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많은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실로 가서 가지고 차관님이 가시든지 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한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제가 불러 가지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적용 일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 간 협의체를 마련하고 전기료 지원 예산을 세우고 제가 주문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문대림 위원 그 당시에 한전 오홍복 부사장은 무슨 얘기를 했다면 ‘농림부랑 협의한 적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하니까 ‘농림부랑 협의한 적이 없다. 산업부랑 협의하고만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제가 ‘농림부·해수부·산업부·한전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해수부에서는 한전과 산업부의 이 전기료 문제를 또 특례 일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희 방에 와서 협의체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런데 농림부는 흔적이 안 보여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희 산업부하고 협의를 했고요. 기재부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문대림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그래서……

○**문대림 위원** 일몰을 막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막지를 못했고요.

○**문대림 위원** 막지 못했지요. 자, 전기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문대림 위원** 잠깐만요. 전기료 증액분 차액에 대한 예산 배정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작년 말에 예산 할 때 넣으려고……

○**문대림 위원**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 이후에 노력했다 칩시다,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이 이러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래서 이 일몰이 10년 전부터 예산이 됐던 것이고 대안을 농림부 차원에서 세우겠다고 했었고 국정감사 때만 해도 대답을 잘 했고 근데……

좋습니다, 그렇게 산업부하고 협의했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해수부는 들르더라고요. 설명도 하고 저희들에게 요구도 하고 그런데 농림부는 장관이랑 차관 똑같아요,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를 보면. 벌써 사십여 곳이 올랐잖아요. 지금 도축장 수수료가 인상됐잖아요. 소비자들은 더 비싼 고기를 먹어야 되고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데 판매도 위축되고 축산 농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그렇지요, 뭐. 여기서 번지르르하게 대답하면 뭐 할 겁니까, 노력하는 척하다 마는데.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와서 해명을 하든가 또 다른 의지를 보이든가 이렇게 해 봤어요? 중재안, 농업 민생 4법 중재안 가져오란 말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산을 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던 게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환율 인상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넣자 그다음에 도축장 이게 일몰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지원하는 방안을 넣자 이런 얘기들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끝나 버리니까 저희들이 못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또 기재부하고 다시 더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제도개선 방안 포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서입니다.

○서삼석 위원 아니, 문대림 위원이 화났는데 내가 풀어줘야지.

농림부장관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왜 전농은 의견을 안 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전농은 왜 의견을 안 들어주냐고. 들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38개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서삼석 위원 근데 왜 뻘어요? 전국농민회총연맹만 빠졌구만. 사실 이분들이 더 이롭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민의길 소속이 와서 쌀 생산자 단체가 왔습니다.

○서삼석 위원 현실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 빠졌다 그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러니까 쌀 생산자 단체가 왔습니다.

○서삼석 위원 다음에는 끼워 줄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다음에는 끼워 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늘 끼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님.

○서삼석 위원 뭘 소리예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쌀 생산자 단체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쌀생산자협회하고 제가 저번에 회의를 할 때 그때 거기서 왔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농이고요.

○서삼석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전종덕 위원 쌀생산자협회하고 전농은 다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다른데 이제 그쪽으로 연결되는 분이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다른 건 맞아요.

○서삼석 위원 차후에 그러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의견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꼭 이분들 의견을 들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12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해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 시위·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 큰 시위에 대해서 농식품부 담당 사무관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확인했다는데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서삼석 위원 이게 단순한 한 단체의 집회라고 이렇게 규정짓기에는 너무나 국민적인 그런 관심사가 있었던 농민들을 대변하는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이렇게, 사무관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을 너무 쉽게 간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런 건 아닙니다.

○서삼석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장관, 차관은 못 가더라도 국장급 정도라도 가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의를 더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파악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로만 보더라도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농림부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삼석 위원** 그리고 출장보고서도 만들게 하고 증빙 서류도 작성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서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저는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송옥주 위원** 장관님, 헌법 34조 6항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께서도 대통령도 포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책무의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가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향후 과제라는 아주 짧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간략하게는 좀 봤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방류를 했고요. 7만 8285㎥의 오염수를 방류를 했는데 이게 전체 탱크의 6%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한 94%의 오염수가 남아 있는데요. 이 앞으로 남은 오염수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 오염수가 방류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앞으로 오염수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농도가 낮은 탱크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방류를 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오염수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국민이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더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역과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것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처의 올해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식약처가 있는데요. 2025년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해양수산부는 8%가 감소가 됐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0% 삭감이 됐고요. 식약처는 47%가 삭감이 됐습니다. 국내 해양에서의 그런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방식이나 주기 등이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안정적으로 예산 지원과 정책이

지속화돼야지만 이게 지속가능한 예방과 재해대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나서 언제 또 이거를 증가를 시키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이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국민에 대한 안전과 생명, 현재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미래 세대와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 저희가 져야 되는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공직자이자 국회의원, 정치인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세부적으로는 장비 72건을 전부 다 우리가 마련하면서 조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어제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저는 쌀값 20만 원 약속 미이행, 무능으로 미이행한 것 또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송미령의 농정 포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오늘 또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쌀값 안정 또 쌀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농식품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어떻게 상승입니까, 지금 정체기에 있지. 0.2%, 0.4%를 상승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지요.

우리 장관이 거부권 행사 건의했는데 이게 자발적인 입장입니까, 국힘의 요청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윤준병 위원** 자발적인 입장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준병 위원** 아니, 검토한 결과 장관의 자발적인 입장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요? 이거 장관이 내용은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알고 있어요? 내가 숙지하고 있는지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내가 볼 때는 몰라 가지고 이것 거짓 주장, 가짜 자료로 이렇게 도색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양곡관리법에 재정 부담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재정 부담과 관련된 내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근데 왜 재정 부담이 커요, 그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윤준병 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재정 부담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를……

○**윤준병 위원** 아니, 3% 결정할 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3%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윤준병 위원** 결정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면 지금 1조 6000억이고……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했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어떤 것어요?

○윤준병 위원 아니, 3%로 결정하셨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윤준병 위원 없는데 어떻게 재정 규모가 나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걸 가정을 하고 재정 부담을 예산을 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정일 뿐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은데 의무로 한다라는 것만 저희가 좀 제외하자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원택 위원 그걸 정부의 권한으로 위임을 해 줬잖아요.

○윤준병 위원 의무고 뭐고 간에 의무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 자율권이라는 게……

○윤준병 위원 자율권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위원님, 변동직불제……

○이원택 위원 안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줬는데.

○윤준병 위원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수입안정보험을 하면 쏘림현상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책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쏘림현상이 덜하지요, 수입안정을 보험으로 하면.

○윤준병 위원 말장난하지 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수급 관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재해대책법에 생산비 수준의 재해액 보장은 재해 지원의 내용, 우리 재난 기본권과 상충된다,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난안전관리법이에요.

○윤준병 위원 맞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상충이 됩니다.

○윤준병 위원 어디가 상충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난안전관리법에……

○윤준병 위원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거기에는 생산비까지는 없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검토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생계와 복구비가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가 불러 드릴게요. 거기에 법에는 뭐라고 돼 있냐, 8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난기본법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이념이 뭔지 아세요? 피해의 최소화를 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 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윤준병 위원 그러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면 복구라고 하는 내용이 그 법에서는 복구라고 정해져 있지만 복구 이외를 정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상충된다고 누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복구와 생계비 이외에……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위원장 어기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생산비가 있으니까요.

○윤준병 위원 아니, 생산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저축된다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하냐고요, 법에 명백히 그렇게 돼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래서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기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그것을 재의요구서에다 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윤준병 위원 뭘 분명히 해요, 내가 조문 보고 얘기하는데!

○이원택 위원 농약대, 대파대도 생산비의 일종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생산비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재해보험법……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윤준병 위원 잠깐만요, 재해보험법 이게 재해보험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요, 할증을 없애면? 보험의 원칙은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는 할증이 없다는 게 재해보험의 기본원칙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맞습니다. 과실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윤준병 위원 아니, 과실이 없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피해를 있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피해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실하고는 다른 거지요.

○윤준병 위원 품목별로 다 정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피해율하고……

○윤준병 위원 피해율에 따라서 종류별로 다 정하고 있다고, 내용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과실하고 피해율……

○위원장 어기구 자,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보험의 원칙도 모르면서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 어기구 마이크가 꺼져서 안 들려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윤준병 위원 뭘 달라요, 똑같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실하고 피해율이 어떻게 같습니까?

○윤준병 위원 내용을 잘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와요, 공부 좀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어기구 장관님, 윤준병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하나하나 가지고 직접 찾아봐주세요. 찾아봐서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내용도 모르면서 자꾸 우기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우기지 않습니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아니, 지금 우기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위원님.

○윤준병 위원 뭘 아니예요, 아니기는?

○위원장 어기구 다음에 정희용 감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들도 제대로 숙지도 못 해 가지고 맨날……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용 위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송미령 장관님 답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앞선 질문에 추가로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 듣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설명을 드려도 안 들으실 것 같기는 한데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의무매입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의무로 하게 되면 쌀 생산을 줄이려는 그것들이 말하자면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의무를 우리가 제외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수급 관리를 사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쌀 가격을 당연히 저희도 높이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어떤 피해율이랄까 이런 게, 자연재해 위험률 확률적으로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증과 할인을 들어가는 거고. 농가 개개인의 과실에 대한 할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준병 위원 그것 말장난하지 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요, 지금 개정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뭘 개정안에 뭐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자료 갖고 와서 얘기를 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내용들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내용도 모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아니, 개정안에 있는 것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보험 원칙도 공부도 제대로 좀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이 양곡관리법이나 재해대책법, 농안법에 대해서 논쟁할 게 많아요. 장관님 그렇게 주장하시면요 거기에 저도 반박할 게 많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위원장 어기구 그러니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잘해 주시고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 대안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으로 이원택 간사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님, 동해 유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한 55일 만에 결국은 내줬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어민들 요청이 있는데 조건부로 내주신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해수부장관으로서 어민들의 조건부에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추야 좀 늦게 해도 되잖아요. 금어기에 해도 되고 반드시 지금 성어기에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장관께서 이것을 조건부로 내준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건부를 걸었으니까 석유공사로 하여금 또는 산업부나 석유공사로 하여 반드시 어민들의 피해를 대변해 주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이것 안 되면 저희들도 현장도 가고, 현장 가서 어민들과 간담회도 하고 따져 보겠습니다, 석유공사도 부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포항청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원택 위원 예, 그것 좀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 주셔야 됩니다. 그것 말씀 드리겠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이원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 선착순에서 배점제로 가는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저한테도 접수된

사람이 세 분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 단계에서 농식품부가 전수조사하고 실질적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장관님, 그것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간담회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래서 실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대책이 없어 버리면 서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 쌀을 감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감축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재배면적을 감축에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재배농가별로 일률적으로 12% 감축해라 그리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라,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하달되고 있어요. 아직 광역시도에서 농민들한테 연락을 안 한 단계인데 광역시도에서 인식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온 광역·도가 3개 정도 되는데 12% 일률 감축하는 것 이것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거기에 공공비축미 배당을 적게 한다든가 페널티를 준다? 이것 과거에 수세에 대해 저항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민들 저항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세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재처럼, 구정 전에 또 1월 안에 농민들한테 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단체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 농가한테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조사료 단지를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축협하고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가 조사료 지원하는 자금도 넣고 그렇게 할 테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지역은 그러면 우리 전락작물직불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단지를 만들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라,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저희들이 몇 개를 제시해 줬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역별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자체하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원택 위원 다시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종덕 위원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예,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고.

○전종덕 위원 이미 지금 보고하라고까지 내려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총량만 준 거지요, 저희가.

○이원택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어떤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보면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한테 이득이에요. 아마 대구·경북이나 경남 농가들도 엄청난 저항에, 쌀 농가들은 엄청난 저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방금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정도라면 문제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출된 자료나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문대림 위원 잠깐만……

○위원장 어기구 2차 질의가 다 마무리됐는데요. 1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그다음에 문대림 위원님.

○윤준병 위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생산 조정과 관련된 의무 페널티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전략작물직불제에 대한 예산 투입하고 그게 긍정적인 인센티브고 강제적인 인센티브가 수반되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농식품부에서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을 제대로 서면화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어기구 아마 그 안이 다 마련돼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위원장 어기구 가능한 빨리, 다음 회의까지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의원님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농협중앙회장께서 아까 ‘인사가 만사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인사가 만사……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사권 남용에 대한 얘기가 의외로 많다. 이번 인사는 캠프의 재취업 창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쇄신과 개혁을 내세웠지만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하겠다지만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회장 장악력 강화, 지역 농·축협의 독립성을 약화시켜 임금 교섭력을 제한하려는 시도, 지역 안배 부족. 특히 지역 안배 부족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는 서울·경기·영남·호남·충청……

○윤준병 위원 호남 없어요.

○문대림 위원 호남도 없어요? 충청 그리고 강원·제주도 기타 지역으로 몰아 버렸어요,

보면.

그래서 아까 임미애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 관련, 이번 인사와 관련 회의록 일체를 일주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상정된 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조경태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종덕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립 박덕흠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만희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조경태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박수진
농업혁신정책실장 강형석
식량정책실장 김종구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직무대리 정아름

농업정책관 윤원습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기획조정실장 전재우
해양정책실장 김성범
수산정책실장 김현태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헌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수산정책관 홍래형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경제대표이사 박서홍
양곡부장 이정훈

【보고사항】

○의안 회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3)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2024. 12. 2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8)

이상 3건 12월 23일 회부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3.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9)

이상 3건 12월 24일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4.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9)

이상 4건 12월 26일 회부됨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6.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7)

이상 3건 12월 27일 회부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5)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이상 6건 12월 30일 회부됨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8)

12월 31일 회부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3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80)

이상 3건 2025년 1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2. 2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6)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4. 12.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20)

이상 2건 12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3.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19.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 11. 20.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이상 7건 12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2	0	3	19	7	4	35
해양수산부	8	0	2	16	6	11	43
농촌진흥청	0	0	0	18	6	0	24
산림청	0	0	1	9	9	2	21
해양경찰청	7	0	2	0	8	3	20